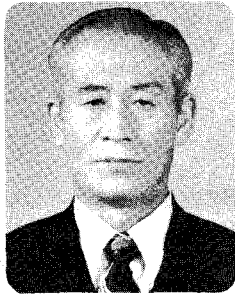


축산발전과 함께 행정기구와 축산단체의 발전이 시급하다



유 윤 수
(한국축산단체연합회장)

70년대 후반기의 축산물 수요증가는 우리 축산업계에 큰 희망을 주었다.

특히 78년의 축산물 수요는 폭발적이라고 표현하다 못해 일부 경제학자들은 마치 미친 말이 날뛰는것으로 표현하기까지 하고있다.

다음표에서 보는 바 와 같이 78년도의 쇠고기 수요증가는 전년대비 놀랍게도 40여%가 증가하는 이변을 나타내었으나 이와같은 경이적인 폭증은 정부에서 과대수입 공급함으로써 쇠고기수요를 부채질한 까닭으로 볼 수 밖에는 없을것이다

위의 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지난 19년간 고기의 수요는 4.8배 계란은 5.2배 우유는 무려 32배가 늘어나고 있어 축산물은 국민식생활의 주요한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

축산물이 이제는 주식화(主食化)되어가고 있음에도 정부는 아직도 쌀생산왕에 대한 또 상금 27억원에도 못미치는 겨우 20억 정도의

빈약한 예산과 적은 인원으로 축산국에 이러한 막중한 일을 맡기고 있어 지금까지의 급격한 성장과정에서 미처 손이 부족하여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등 문제점이 많았던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는 못 할 것이다.

이제 70년대의 행정주도형 발전과정에서 업계의 자율성의 상당한 부분을 억제당하고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업계에 추구는 따위의 부조리도 이제 80년대 발전과정에서 해결하여야 할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계획에 의하면 80년대 중반기에는 (86년도)육류는 현재의 약 2 배, 계란은 2.3 배 우유는 약 4 배정도의 수요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면서도 이를 감당할기구와 인원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준비나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은것 같아 불안하고 안타까운 심정에서 우선 몇가지를 제의한다.

주요 축산물 연도별 소비량

구분 연도별	1 인 당 국민소득	육 류 총 량		우 육		돈 육	
		총 량	1 인 당	총 량	1 인 당	총 량	1 인 당
1960	\$ -	M/T 89,043	gr 3,559	M/T 12,950	gr 510	M/T 58,025	gr 2,317
1961	83	91,879	3,811	13,303	524	60,043	2,257
1962	87	70,596	2,701	16,847	645	38,019	1,454
1963	98	96,451	3,576	21,051	784	55,146	2,038
1964	102	113,270	4,098	31,923	1,155	62,511	2,262
1965	106	97,600	3,439	27,261	961	55,881	1,969
1966	126	143,943	5,074	29,443	1,038	95,800	3,377
1967	143	128,067	4,513	31,953	1,126	72,154	2,543
1968	168	131,265	4,307	35,809	1,175	61,760	2,027
1969	208	151,464	4,843	33,133	1,064	76,080	2,422
1970	234	165,063	5,191	37,340	1,174	82,546	2,596
1971	266	170,361	5,250	39,484	1,217	80,880	2,491
1972	293	184,725	5,591	40,229	1,243	90,230	2,671
1973	361	186,846	5,634	44,919	1,368	90,126	2,689
1974	481	200,128	5,889	51,506	1,545	95,353	2,746
1975	532	224,734	6,370	70,292	1,990	98,848	2,800
1976	698	245,465	6,845	75,533	2,106	109,046	3,041
1977	864	295,987	8,123	81,624	2,240	141,311	3,878
1978	1,279	374,904	10,127	114,731	3,099	177,984	4,808
1979	1,624	428,857	11,330	113,827	3,110	225,307	5,960
1980 (계획)		(455,103)	(11,837)	(103,309)	(2,687)	(257,026)	(6,685)

구분 연도별	계 육		계 우		계 돈	
	총 량	1 인 당	총 량	1 인 당	총 량	1 인 당
1960	M/T 18,068	gr 732	천개 818,799	개 33	M/T -	gr -
1961	18,533	730	818,070	31	1,168	45
1962	15,730	602	839,110	31	2,647	101
1963	20,254	754	975,906	35	4,512	168
1964	18,836	681	943,048	34	6,988	187
1965	14,458	509	855,786	30	10,474	304
1966	18,700	659	1,298,676	46	13,914	422
1967	23,960	844	1,349,397	48	18,762	599
1968	33,696	1,105	1,504,160	49	24,034	716
1969	42,251	1,357	2,430,470	65	35,037	1,027
1970	45,177	1,421	2,456,064	75	49,688	1,431
1971	49,997	1,542	2,536,000	76	62,184	1,851
1972	54,266	1,677	2,790,000	86	79,852	2,500
1973	51,801	1,577	2,500,493	76	104,082	3,200
1974	53,269	1,598	2,755,000	83	126,901	3,606
1975	55,594	1,580	2,896,132	82	162,435	4,580
1976	60,836	1,698	3,049,220	85	198,892	5,546
1977	73,052	2,005	3,551,615	97	254,245	6,978
1978	82,189	2,220	3,742,805	101	325,867	8,803
1979	89,723	2,360	4,231,360	111	374,410	9,930
1980 (계획)	(94,768)	(2,465)	(4,485,000)	(117)	(415,217)	(10,800)

19년간 축산물 증가지수

년도별 구분	육	류	계	란	우	유
1960	100		100		100	
1965	109.6		104.5		896.7	
1970	185.4		300		4,254.1	
1975	252.4		353.7		13,907.1	
1979	481.6		516.8		32,055.6	

정부기구

그간 정부는 축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조세감면 혜택과 용자등의 지원을 하였으나 이에 상응하는 축산기구는 구태의연하고 그간 일부증설된 기구들도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결여되어 있다.

예를들면 축산시험장이나 가축위생연구소는 농촌진흥청산하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국립종축장과 같이 농수산부직할로 되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이 빨리 정확히 수행되도록 되어져야 될 것이다.

축산 정책도 경제정책의 테두리 내에서 다루어져야하고 또 현재 그렇게 되고있는 만큼 기술계통의 축산국장을 보좌하는 경제전공의 부국장을 두는 제도도 고려 하여야 될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축산이 이제는 중소가축(가금, 양돈)의 전업화내지 기업화로 중소가축의 비중이 커진만큼 축산국기구에 중소가축을 전담하는 중소가축과의 신설이 불가피하며, 축산단체의 발전에 따라 축산행정과의 신설과 방역 유통 가공 종합기획조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보강등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축산단체

최근 업계에서는 79년부터의 불황을 겪고

안정된 축산을 위하여 계열화생산이나 양축의(닭, 돼지)등록제 허가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등록제나 허가제를 해야 된다는 측의 주장은 닭이나 돼지는 번식생리상 단기간에 대량 증식이 용이하여 생산조절을 하지 않고는 항상 과잉생산 수급불균형등으로 가격이 안정될 수 없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생산조절을 하기 위하여는 등록제나 허가제가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고, 등록제나 허가제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자율생산체제가 아닌 계획생산체제로는 신속한 생산증감으로 수요공급에 대처가 불가능하고, 경쟁이 아닌 통제로는 우리업체가 발전하지 못하며 생산성만 저하되고 허가권 또는 쿼터자체가 프리미엄이 붙어 이권화 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주장이다.

또 축산업의 안정을 위하여 계열생산이 거론되고 있으며 계열생산만 되면 모든것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나라같이 시장이 좁은나라에서 한두개의 계열회사에 모든 양축가가 종속되어 이들 계열주체회사가 횡포를 할 경우 양축가의 실망이 없어진다는 것은 일반공업분야에서 종합회사가 중국에는 계열회사인 중소기업이나 심지어 가내공업까지 흡수하여 문어발식 경영을 하므로써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칼·메인·후드사가 산란계 천백만수를 가지고 있는데 양계산업의 경우 설비산업의 발전으로 완전자동화 할 경우 이런 회사 2개면 국내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있다.

이것은 웃을일이 아니고 가까운 일본에서 5대재벌회사가 시도하려다 여론에 굴복하여 좌절된 일이 있는 것만 보아도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인구 1억이상되는 대국에서 여러 계열회사가 경쟁할수 있는 나라들의 제도를 그대로 옮겨오는데도 문제가 있어 우리 실정에 맞도록 연구검토 되어져야 될 것이다.

이제 우리 양축가가 안정된 양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증산일변도의 정책에서 부업이나 전업축산에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축산정책을 떠나가야하며 계열생산의 주체가 양축가가 되기 위하여는 생산자 단체인 축산협동조합등이 현재의 농협에서 독립하여 신용, 경제업무를 취급하고 축협이 계열생산의 주체가 되어 잘 하려고 노력하는 전업또는 군소양축가를 보호하여 많은 농민 양축가의 총화위에서 발전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축협이 더욱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하여 중앙조직 지방조직 축종별 조합등에 관한 연구와 업계의 의견조정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축협하면 생산자만이 참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산업이 다양 복잡화함에 따라 가공처리 동물약품 사료제조 유통업자도 적대시하여 소외하는 풍조를 시정하여 준회원 또는 관련업체로 함께 참여하여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축산단체의 흐름을 살펴볼때 20년 정도로 변화를 가져왔다. (축산동업조합 17년, 농회 22년, 축산동업조합부활 3년, 축산협동조합 23년, 축산진흥회 2년)

오늘의 현실에서 이의 합리적개편시기에 당면한 것으로 보며 이러한 산적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들의 의견집약이 시급한 문제라가 아닐수 없다고 통감하는 바이다.

광 주 부 화 장



바 브 콕

B-300V



아 바 에 이 카

사무실
전남 광주시 동구 양림동 8-15번지

전화 ⑧ 1107·2198